

스카이워크

- 그랜드 캐년의 하늘을 걷다



그랜드 캐년의 스카이워크

임지연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jylims@cerik.re.kr

요즘같이 30도를 넘나드는 맹렬한 더위 속에서 시원한 빙수 한 그릇에 선풍기 하나 틀어 놓고 비명이 오가는 공포 영화를 보면 무더위가 언제 왔는지도 모를 것만 같다. 물론 필자와 같이 무서운 영화가 나오면 사나흘 밤잠을 설치는 사람에게는 여름과 공포 영화의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나에게 지난 여름 미국 여행길에 있었던 그랜드 캐년의 '스카이 워크(The Grand Canyon Skywalk)'의 경험은 지금 생각해

도 심장이 오그라들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자연 그리고 건축

많은 사람들에게 건축은 자연 보존의 영역과 등을 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아마존의 개발을 보아도 그렇고, 수많은 환경보호단체들이 건설, 개발만 하면 반대 시위를 벌이는 것도 이런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팔안으로 굽는다 했던가? 필자에게 건축은 등을 댄

것이 아니라 건축과 자연이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때로는 강에 다리를 놓아 서로를 오가기도 하며, 때로는 강이 더 깊어져 멀게만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스카이 워크’는 둘 사이에 놓인 커다란 대교의 느낌이었다. 이 건축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직립보행의 한계를 똑똑하게 넘어설 수 있었으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후알라파이 인디언 부족의 ‘빵과 버터’

스카이 워크는 미국의 후알라파이(Hualapai) 인디언 부족이 그랜드 캐년 절벽 위에 말발굽 모양의 다리를 관광객 유치라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건설한 시설물이다. 개장 당시 행사에서 후알라파이 부족의 원로는 “외부 지원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스카이 워크 건설로 우리 부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를 부족의 ‘빵과 버터’라고 비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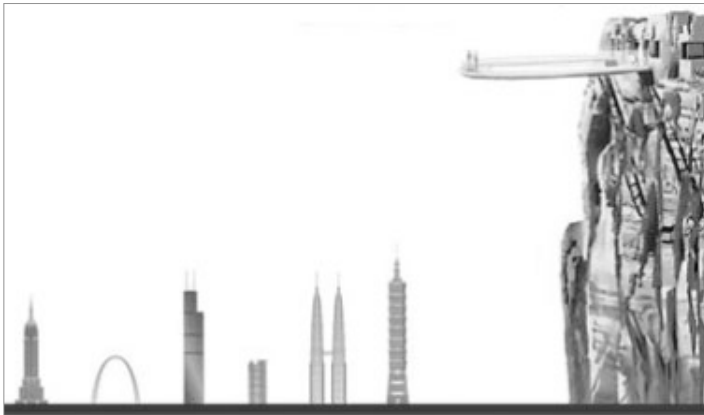
하지만 스카이 워크의 건설 계획 당시에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부족 외부의 애리조나주 환경

단체와 전직 국립공원 공무원들은 자연 환경을 훼손시키고, 천혜의 자연 보물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는 건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부족 내부에서도 이 프로젝트가 신성한 땅을 훼손시킬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그러나 후알라파이 부족은 이미 심각한 재정난·고용난, 그리고 부족의 알콜 중독자 증가와 빈곤을 달리 헤쳐 나갈 묘안이 없었다. 이에 부족장은 연간 450만명의 관광객이 그랜드캐년 국립공원을 찾고 있고, 이미 상당한 지역이 벌목되고 훼손되었으므로, 부족의 큰 수입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스카이 워크를 지으면 “우리의 땅을 지키는 데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다”고 그들을 설득하였다.

이로써 후알라파이 부족은 라스베이거스의 개발업자인 데이비드 진과 손잡고 총공사비 3,000만 달러에 스카이 워크를 건설하였다. 스카이 워크는 여러 개의 박스를 연결하여 하나의 말굽 형태로 만들어졌다. 스카이 워크가 설치될 장소 한 편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졌다. 단 이를 만에 현장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유리 작업, 난간 작업 등 모든 마무리 작



스카이 워크를 찾는 관광객들



스카이 워크와 세계 건물들의 높이 비교.

업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160만 파운드의 육중한 몸무게를 자랑하는 스카이 워크가 완공된 것이다.

飛上(비상)

2007년 3월 20일, 우여곡절 끝에 스카이 워크가 개장을 했다. 말발굽 모양이 협곡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형태로 스카이 워크의 전체 폭은 20m이며, 협곡의 끝에서 스카이워크 끝까지 21m이다. 약 3m의 데크는 투명한 유리로 시원하게 그랜드 캐년을 담고 있어 그야말로 배경이 건축물이 되고 건축물이 배경이 되는 듯한 느낌이다. 이 말발굽 모양을 굽어 돌아오는 거리는 불과 50m 남짓이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에게는 5초도 안 걸릴 정도이지만 나와 같은 누군가에게는 입구에 들어가 출구로 나오면서 5년은 더 늘어버린 것 같은 거리이다.

그도 그럴 것이, 스카이 워크는 해발 1,450m, 협곡의 바닥에서부터 350m, 가까운 지대로부터 수직으로 150m에서 240m 사이쯤 된다고 하니 어디 겁이 나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겠는가 말이다. 안내자는 보잉747 기종 일흔 한 대도 견뎌낼 수 있다며

겁 많은 나를 위로했지만, 이미 두려움에 압도당한 나에게 수치를 앞세운 '사탕발림'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그러나 나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기도 하고, 투명한 유리판에 배를 대고 누워 슈퍼맨 포즈를 취하며 사진기사에 게 찍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함께 간 일행도 슈퍼맨 포즈를 하고 식상한 사진을 찍어 왔다. 그 사진

이 얼마나 현실감이 넘치는지 정말 스카이 다이빙이라도 한 듯 흡사 하늘 위를 날고 있는 모습이었다. 무서움에 발아래는 거의 쳐다보지도 못했던 내가 후회스러워지는 순간이었다. 따가운 태양과 맞서듯 선선한 협곡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허공에 발을 디디며 소란스럽게 분주한 관광객들 사이에 웬지 고요하고 오싷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잊을 수 없다.

후알라파이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그랜드 캐년 위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을 오픈해 걷는 짜릿함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식사하는 기분도 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그 귀추가 주목된다. 높은 곳에 우두커니 서, 떨었던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흐름과 동시에 목 뒤로 땀방울이 맺히는 줄도 모르는 긴장감을 느낀다면 이것은 웅장한 높이감이 주는 두려운 공포일까, 짜릿한 쾌감일까? 그 답은 이곳에서 본 자만이 알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스카이 워크에 가기로 결심했다면, 혹은 가야만 하는 운명이라면 후회하지 말고 꼭 사진 한 장 남겨 그 느낌 그대로 간직하길 추천한다. CERIK